

KIA, 어느새 4위 깜짝 상승...1~3위 정조준 집중 공략

🔍 KIA 타이거즈 주간전망

이번주 kt·삼성과 각각 3연전
좌완 양현종·윤영철 듀오 출격
지난주 ERA 2위 마운드 안정

5할 승률 고지를 밟은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원정 6연전에서 상위권 도약에 나선다.

KIA는 20일부터 22일까지 kt 위즈, 23~25일 삼성 라이온즈와 각각 원정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지난주 5승 1패의 성적으로 22승 22패를 기록, 승률 0.500을 맞추며 공동 4위로 올라섰다. 시즌 초반 좌완 듀오 양현종과 윤영철이 살아났고 특히 주말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기록한 시즌 첫 스윙과 4연승을 통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는 KIA가 중위권 싸움에서 벗어나 상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다. kt와 삼성 모두 승자가 크지 않은 만큼,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주중 첫번째 상대인 kt는 21승 3무 23패(승률 0.477)로 리그 7위다. KIA와는 불과 1경기 차다. KIA는 kt를 상대로 올 시즌 2승 1패 위닝시리즈를 거둔 경험이 있다. 하지만 kt는 한화, LG에 이어 팀 평균자책점 리그 3위(3.48)에 오를 정도로 마운드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면 팀 타율은 0.244로 7위에 머무르고 있다. KIA는 빈약한 상대 타선을 최소 실점으로 묶고, 타선에서 화력을 발휘해 kt 마운드를 공략해야 한다.

시리즈 첫 경기는 윤영철이 선발 등판한다. 윤영철은 초반 부진 끝에 2군을 다녀온 뒤 지난 14일 광주 롯데전에서 4이닝 4탈삼진 2실점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평균자책점은 11.17로 여전

2025 KBO 중간순위 <19일>

순위	구단	승-패-무	승률	승차
1	LG	30-16-0	0.652	0.0
2	롯데	28-18-2	0.609	2.0
2	한화	28-18-0	0.609	2.0
4	KIA	22-22-0	0.500	7.0
4	SSG	22-22-1	0.500	7.0
6	NC	20-21-1	0.488	7.5
7	kt	21-23-3	0.477	8.0
8	삼성	21-25-1	0.457	9.0
9	두산	19-25-2	0.432	10.0
10	키움	14-35-0	0.286	17.5

5할 승률 고지를 밟은 KIA 타이거즈가 20~25일 kt, 삼성과 원정 6연전을 통해 상위권 도약에 나선다. 주중 kt와의 첫번째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윤영철. KIA 제공



히 높지만 반동의 신호탄을 쏘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kt는 조이현을 선발로 예고했다. 조이현은 올 시즌 1군에서 단 한 차례 선발 등판해 5이닝 무사사구 2실점을 기록했다. 1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대체선발로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KIA 입장에서는 시리즈 첫 경기를 잡고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말 맞대결을 벌일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한때 2위까지 올랐던 삼성은 현재 8위로 밀려났다. KIA는 삼성과 올 시즌 맞대결에서 1승 3패로 밀리고 있지만,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해볼 만한 상대다. 삼성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4.23으로 리그 7위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마운드 붕괴가 두드러지

면서 연패의 늪에 빠졌다.

KIA는 해결사 최형우, 3할타자 김도영, 그리고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한 오선우로 이어지는 타선을 앞세워 삼성 마운드를 공략에 나선다. 허리통증으로 엔트리 말소됐던 위즈덤도 주말 삼성전에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삼성의 타선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팀 타

율 0.270으로 롯데(0.285)에 이어 리그 2위다.

KIA 마운드의 집중력과 운영이 중요한 이유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2위(2.7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마운드를 자랑하고 있다. 윤영철의 반등과 불펜진의 탄탄한 흐름, 타선의 응집력까지 균형을 이룬다면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혜원 기자

광주일고 5번째 MLB 선수 배출

김성준 텍사스 입단...고졸 직행 최초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김병현, 최희섭, 서재웅, 강정호에 이어 5번째 메이저리그(MLB) 입성 선수를 배출했다.

제2의 오타니 쇼헤이를 꿈꾸는 광주일고의 투수 겸 내야수 김성준(18)이 19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텍사스 구단은 이날 김성준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입단 계약금은 120만달러(약 16억8,000만원)다.

김성준은 텍사스 입단으로 광주일고의 5번째이자 고졸 직행 첫 MLB 선수가 됐다.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병현(성균관대), 최희섭(고려대), 서재웅(인하대)은 대학을 거쳤고, 강정호는 KBO를 거쳐 MLB에 진출했다.

한국 출신으로는 박찬호, 추신수, 양현종에 이어 4번째, 광주 출신으로는 양현종에 이어 두 번째 텍사스 유니폼을 입었다.

우투우타인 김성준은 고교야구에서 투타를 겸업하고 있다. 지난해 투수로는 14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2.65를 찍고, 타자로는 28경기 타율 0.307, 1홈런, 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31을 기록했다.

김성준은 이날 텍사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김성준

“빨리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고 싶었다”면서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빨리 성장한다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텍사스와 계약을 결정했다”고 입단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준은 “마이네리지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던지고 뛰겠다”면서 “텍사스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했다. 투타 겸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들어주고 프로그램까지 자세히 짜줘서 그 믿음으로 미국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오타니 선수가 롤 모델이다. 오타니는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 외적으로도 배울 게 많은 선수”라며 “최선을 다해서 투타 모두 뛰어난 성적을 거둬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적으로 투타 겸업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영입에 앞장선 해밀턴 와이스 텍사스 국제 스카우트 이사는 “월드 클래스의 재능을 가진 선수이자, 인성까지 훌륭하다. 유격수 수비와 타격에서도 큰 인상을 받았고, 마운드에서 퍼포먼스 역시 뛰어났다”고 소개했다.

조혜원 기자·연합뉴스

광주FC, U12 축구 꿈나무 24일 공개 테스트

광주FC가 지역 내 우수 선수 발굴 및 인재 육성을 위해 U12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

19일 광주FC에 따르면 이번 공개 테스트는 광주 지역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 테스트와 기본기, 미니게임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코칭스태프 평가를 통해 U12 엘리트부(육성반)에 선발되며 우수 선수는 아카데미부(취미반)에 추천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12시까지 구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와 함께 이메일(wslee@gwangjufc.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개 테스트 참가 선수에게 개별 연락된다. 테스트는 24일 오후 3시 광주 남구 진월복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축구화, 운동복, 음료 등을 지참해 오후 2시 30분까지 집결하면 된다.

조혜원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 ‘태극마크’

컴파운드 남자 MQS 기준 통과

권유나, 여자 전통목 석권 쾌거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이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윤태성은 지난 15~18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장배 전국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윤태성(CM)은 컴파운드 50m 1라운드 1위, 50m 종합 1위,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1위를 기록하며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컴파운드 남자 MQS 기준을 통과한 윤태성은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오는 9월 광주에서



윤태성

열리는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와 2026 국가대표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한다.

여자부에서는 권유나(CW)가 컴파운드 여자 부문 전통목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권유나는 50m 1라운드 1위, 50m 종합 1위,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1위를 기록하며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권유나도 태극마크가 유력하다.

큰 경기에 강한 권유나는 윤태성과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 4강에서 서울팀을 상대로 147-147 동점을 기록, 샷오프에서 승리해 결승에 올랐고, 결승전에서도 대전팀과 149-149 동점 끝

에 샷-오프 접전을 펼치며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다.

권유나가 태극마크를 달고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이미 출전이 확정된 김옥금, 윤태성과 함께 무더기 금메달에 도전한다.

윤태성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안형승 감독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단점을 극복했다”며 “태극마크의 꿈을 이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방에서 열리는 축제에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권유나는 “오늘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며 “오는 6월 마지막 선발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무대에 꼭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혜원 기자

광주체육중, 소년체전 선수단 결단식...“필승 의지 다짐”

광주체육중학교가 19일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문종민 광주체육회 부회장, 김민주 광주육상연맹 회장,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 출전선수 154명,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4~27일 주 개최지 김해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선수단은 32개 종목에 630명이 참여하며 광주체육중에서는 12개 종목에 선수 154명이 출전한다. 목표는 금메달 11개 이상, 총 31개 메달 획득이다. 지난 17~18일 사전경기로 열린 육상에서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다.

조혜원 기자



광주체육중학교가 19일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레슬링부 김수형과 배드민턴부 이윤서가 선수 대표로 나서 최선을 다해 대회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체육중 제공